

주민 동의없이 개발행위 허가 물의

청간리 풍력발전설비 설치 공사 착공에 청간리 · 용암2리 반발 ... 20kw 용량 10개 설치

고성군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원도로부터 사업허가권이 나왔다는 이유로 주민동의도 얻지 않은 채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성면 청간리 231-22번지 외 3필지 6,747㎡의 면적에 대해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했다. 사업자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소재한 G.U주식회사이며, 허가 내용은 풍력발전기 20kw 용량 10개와 관리소 98.4㎡, 기계실 48㎡이다.

이에 대해 풍력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에 위치한 토성면 청간리와 용암2리 2개 마을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동의를 얻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업체는 지난 2일 오후 1시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뒤늦게 사업설



고성군이 주민동의도 얻지 않은 채 풍력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공사가 진행중인 토성면 청간리 풍력발전설비 설치공사 모습(사진 왼쪽). 오른쪽은 지난 2일 용암2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해 설명회 자체가 무산됐다.

주민들은 풍력발전설비가 들어설 경우 주위 땅값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고, 전자파 및 소음발생도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그동안 마을 이장은 물론 면장까지도 고성군에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고성군이 설명회도 없이 개발행

위를 내준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성면 용암2리 이종선 이장은 “고성군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업체에게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면에 제출하고 면에서도 군에 입장을 전했는데, 주민동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사착공을 해놓고 이제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행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G.U 주식회사 관계자는 지난 2일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는 예측결과 소음환경 목표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저주파음으로 인한 영향도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G.U 주식회사 이종래 대표는 지난 3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다음에 전화해 달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관련 부서인 고성군 신성장개발과 관계자는 “4월 2일 경제도시과에서 업무가 이관돼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도지사 허가사항이어서 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고 착공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소나무 죽어가는 이유 논란 토성면 천진2리 주민들이 마을 뒤편에 있는 100여년 된 소나무 3그루가 인근에 위치한 수산물 수입업체에서 내보낸 바닷물 때문에 말라 죽어가는 것 같으며,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12면> 원광연 기자

알림

강원고성신문 홈페이지 개통

지난 1월 31일 창간호를 내보낸 고성신문이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또 하나의 새로운 뉴스 공간인 홈페이지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신문 홈페이지 주소는 (goseongnews.com)입니다. 6월 중순부터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강원고성신문'을 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업데이트는 정기구독자들이 신문을

받아보신 이후인 수요일 오전까지 이뤄집니다. 다만, 특별하고 중요한 뉴스가 있을 경우에는 지면에 보도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기사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신문은 이번 홈페이지 개통을 계기로 창간이념인 △행복한 고성 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